

기관 돋보기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우리는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충북도내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찾아 그들의 활동과 핵심사업 등을 듣고 공유하려 한다.

그 첫 번째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번의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격 달마다 우수 기관 및 시설/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2005년 설립돼 ‘우리는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280여명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매년 880명의 자원봉사자 97곳의 지역 단체 등에서 복지관과 함께하고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문화여가지원 등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등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모습(자기결정성 프로그램, 케이크 만들기).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전경.

4번 평가에서 모두 A등급으로 최우수 기관 선정
 다양한 장애 재활 전문 서비스로 자립능력 향상

다.

설립 이래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밖에도 2012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충북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전국 최우수 선정, 2012년 12월 한마을 합창단으로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화합상 수상, 2013년 12월

집합정보화교육 우수기관으로 충청북도지사 표창, 2015년 1월 현대자동차 2014년 프로그램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호찬 관장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덕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한다”며 “9개 읍면으로 이뤄져 각 지역에서 매년 18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지역 거주 장애인의 생활여건을 살피며 대상자를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본 것이 좋은 성과로 돌아온 것 같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여성장애인자조모임인 ‘라온제나’,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작업단 ‘화이트클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회응용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 관장은 “우리 복지관 이용자

단 발달장애 청소년이 2017년 하트하트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역량을 키워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성장했고 2019년 하트하트재단에서 자격증도 발급 받았다”며 “학교를 졸업해 자신이 다녔던 학교를 포함한 지역 모든 학교에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주민과 함께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참 대견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후원금 비중이 컸던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후원금 감소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졌다.

전 관장은 “그래도 복지관 설립 이후 17년 동안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복지관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장애에 대한 시선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서비스 강화, 장애인 권익 옹호 앞장,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제시
 보건복지부 허가 등 거쳐 2022년 하반기 설립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승우 행정부지사과 사회서비스 관련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운영 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부서와의 논의·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고, 충북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개월 간 충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연구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정했다.

또 지역 특화사업으로 국공립·민간 시설·기관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광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도는 설립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와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도출된 설립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다”고 전했다.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전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확장 이전 개소

중장년 채용 희망 기업, 구직 신청·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25일 확장 이전한 청주스마트직지타워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2013년 충북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청주산업단지 내 비즈니스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간 도내 만 40세 이상 중장년들에게 재취업 컨설팅, 생애경력설계 교육, 전직스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취업희망소상공인 직업 전환 컨설팅을 비롯해 충북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 용역, 퇴직 전문인력 중소기업 연계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전 개소식은 충북도와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특화사업(지자체협업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공모 선정으로 약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상담사(컨설턴트)를 기존 7명에서 13명 증원해 총 20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취업지원 사업 이외에 충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구인기업 발굴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시설 등 공간 협소로 이용에 불편함에 따르던 기존사육과 달리 신사육에는 충북도의 지원(3억원)으로 교육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중장년층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남산무역, 청주시에 '사랑의의류' 기탁

5000만원 상당 의류 663벌... 종합사회복지관 8곳 전달

충남 천안 의류 도소매업체인 남산무역은 19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5천만원 상당의 남녀 의류 663벌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범덕 청주시 시장, 이재숙 복지국장, 남산무역 김철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5000만원 상당의 남녀 의류(티셔츠, 바지, 니트, 코트 등) 663벌은 청주시내 종합사회복지

관 8곳에 전달돼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지원 될 예정이다.

한범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남산무역 김철호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의류는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남산무역은 청주시에 5천만원 상당의 남녀 의류 663벌을 기탁했다.

남산무역은 의류 도소매업체로

바자회 의류(티셔츠, 바지 등) 기탁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바우처 택시 운행

일반 택시 50대 · 비휠체어 장애인 등 운송 서비스

청주시가 교통약자 해피콜을 특수 승합차에서 일반 택시로 확대한다.

시는 9월부터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콜을 접수한

승객에게 우선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해피콜 승합차 51대와 임차택시 18대로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시는 바우처 택시에 참여할 사

업자를 모집한 뒤 9월부터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개인 택시 30대와 법인 택시 20대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 저렴하다.

10km 기본요금 2000원에 10~15km 구간은 km당 200원, 15km 초과 구간은 km당 300원씩 추가된다. 최대 요금은 지역 내 4000원, 지역 외 6000원이다. 콜비 1000원은 별도다.

현행 일반 택시 요금은 2km 기본요금 3300원에 137m당 100원, 34초당 1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바우처 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이 택시의 이용 대상은 3500여명이다.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노인장기요양등급 1~4급)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5520명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해피콜 승합차와 요금이 같은 바우처 택시를 탈 수 있다.

콜비 1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문전앞 서비스가 제공된다.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온함'... 예산지수 증가

권리증진 예산서 발간... 올해 278개 사업 973억 투입

진천군의 아동예산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예산지수는 아동예산과 비아동예산을 비교한 수치로 '100' 이하일 경우 전체예산 중 성인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큰 것을 의미하고 '100' 이상일 경우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큰 것을 의미한다.

진천군의 경우 올해 지수 127.97을 기록해 지난해 106.25

보다 21.72(20.4%)가 증가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아동관련 사업 분석,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

동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 6개 영역 등을 분석한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했다.

해당 예산서는 아동친화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책자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군은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78개 사업에 973억원의 아동친화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올해 일반회계 기준 본예

산 4696억원 중 무려 21%를 차지하는 수치로 지난해 759억원보다 214억원이 증가했으며 사업 숫자도 63개가 늘었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6개 영역별로 올해 아동친화 예산을 분류하면 교육환경 부문이 전체 아동친화 예산의 36%인 35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놀이와 여가 338억원(35%), 보건과 사회서비스 124억원(13%), 가정환경 89억원(9%), 안전과 보호 46억원(5%), 참여와 시민의식이 20억원(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향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사업 추진

"치매환자 100만 시대, 어르신 돌봄 맡겨주세요"

제천시가 치매환자의 보호기능 확대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2977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9.89%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보고됐다.

이에 시는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40% 이하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장기요양등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자와 등급 신청대기자이다.

지원내용은 인지지원등급자인 경우 주간보호 8일, 방문요양 월 42시간, 단기보호 6일 중 1가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등급대기자는 주간보호 20일, 방문요양 월

42시간, 단기보호 6일 중 1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인지지원등급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등급대기자는 3개월이다.

신청방법은 먼저 치매안심센터

에 신청을 한 뒤 시와 협약한 10개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관리팀(☎043-641-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음성군, 2030년 시 승격 위한 기반 조성 나서

국립소방병원 건립·택지공급·도시개발 등 추진

음성군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인구 늘리기 기반 조성에 승부수를 띄웠다.

25일 군에 따르면 음성읍·금양읍의 인구를 각각 2만명 이상, 전체 인구 15만 명 달성을 시 승격의 목표로 잡았다.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 5만명 이상의 읍·면이 있거나, 2만명 이상의 읍·면이 2개 이상이고 두 지역의 합이 5만명 이상이며, 총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과감한 도시개발과 택지공급을 추진하고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먼저, 성본·맹동·용산산단에 1만645세대(2만5천여 명), 도시개발지역인 삼정·덕정·본성지구와 감곡역세권에 6천814세대(1만6천여 명)를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음성읍 신천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맹동면 동성리),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맹동면 쌍정리), 코아루 아파트, 금석 공공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3천여 세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인구 증가도 꾀한다.

정주여건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국립소방병원 유치가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다.

2024년 개원할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에 사업비 1천900여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의 302병상 규모로 조성한다.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한다

지역 내 5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음성군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 내 5개 유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음성군이 11일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 내 5개 유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를 비롯해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홍대희 회장,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진용 회장, 관성푸드뱅크 유재호 대표, 음성군 새터민협회 유옥이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기관 간 협약 사항을 조율하고 지원을 총괄하며, 각 유관기관은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민간단체로 확대 추진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강화 '총력'

기존 출생축하 지원 외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추진

단양군이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출생축하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 강화에 나섰다.

군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대상을 기존 19~39세에서 49

세로 확대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 아이 기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각 2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했다.

더불어 신규 시책으로 지난달 2일 이후 지역 내 출생신고를 마

친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향후 효과가 있는 은 목걸이를 아이에게 선물해 탄생을 기념하고 향후 미아 방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 연락처를 목걸이에 새겨 넣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아이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약 15일의 제작기간 소요 후 수령 가능하다.

제천시 "위기가정 아동보호 급여 신청하세요"

위기가정 아동 경제적 지원... 매월 1인 7만원씩 지급

제천시는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 급여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연중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현재 지역 내 위기가정

아동 25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43-641-5415)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1인 7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여성 위생용품류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영동지역 '나눔리더' 1호 탄생

김오봉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장
"작은 시작으로 많은 나눔 실천"

영동군에서 첫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일 영동군청에서 김오봉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대표위원장에게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달했다. 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리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리더는 개인이 한 해 동안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



김오봉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대표위원장이 5일 영동군청에서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부터 '나눔리더' 인증패를 받고 있다.

다. 다양한 모인, 단체, 협회이름으로 3년 내 1000만 원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하면 나눔리더스 클럽 가입도 가능하다. 기부금 완납시 등급별 회원 브로치를 증명하며 나눔리더 회원임을 인증하는 인증패가 전달이 된다. 각종매체 및 간행물에 소개되는 동시에 정부 및 공공기관, 사

회복지공동모금회 행사 등에 초청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눔 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영동군내 소외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지역사회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된다. 김오봉 나눔리더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문화 공유를 시작하려 한다"며 "처음에는 비록 작을 수 있지만 영동에서 보다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리더 모금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43-740-35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라이온스클럽 지역복지 증진 협업



괴산군은 5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괴산군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괴산·남산라이온스클럽 2곳
이동 약자 주택개조 사업 지원

괴산군은 5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괴산군라이온스클럽'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차영 괴산군수, 괴산라이온스클럽 최경섭 회장, 남산라이온스클럽 심규인 회장

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괴산군라이온스클럽은 '취약계층 이동약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위한 재능기부와 현금·물품 지원을 한다. 괴산군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이동약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필요한 대상자 및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거

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구에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차영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에게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지원도 하게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희망괴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가족센터 내달 준공... 청소년 문화의 집 공정률 90%

증평군이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가족센터가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에 들어선다. 2018년부터 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외부 조경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아이 돌봄 교실, 언어치료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등이 들어선다. 복지타운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주

간보호센터도 설치한다. 군은 기존 장애인 복지관 별관을 증축할 예정이다. 지난달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원 등 전체 사업비 15억원으로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간다. 증평읍 송산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서 군립도서관, 김득신 문학관과 함께 문화타운을 형성한다.

2018년부터 56억원을 투입한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0%로 올해 안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동아리실, 영상스튜디오, 영화감상실, 댄스연습실, 밴드실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지난달에는 보훈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회관을 개관해 보훈단체 7곳이 입주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교통약자 배려 간이승강장 설치

1억9400만원 투입... 신규 12개·교체 6개

보은군이 교통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내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및 의자 교체 사업 추진하고 있다. 군은 노약자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된 버스 간이승강장을 교체하고 이

용이 불편한 의자를 교체하는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버스 간이승강장을 교체하는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 교체와 승강장 유리등에 햇빛 가리개(썬팅)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는 등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승강장 신규설치 12개소, 승강장 교체 6개소, 의자 교체 40개소에 1억 9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와 도색작업을 실시하는 등 이번 사업을 통해 버스승강장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교통약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아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제1회 아동정책 창안한마당'이 열렸다.

제1회 옥천군 아동정책 창안한마당 개최

아동들이 제안한 정책 규정 적극 반영

옥천군이 어린 학생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이 직접 아동 관련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아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아동정책 창안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에 앞서 군은 옥천에 거주하는 만 10~18

세, 초등학교 4학년부 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모둠행태(2~5명)로 신청을 받아 총 14개 팀(55명)이 참여했다. 이날 한마당 행사에는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이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고안한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진로체험 다양화,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 비흡연자를 위한

보건정책, 공중화장실 안전 및 청결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뤄 학생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줬다. 이날 대상은 'No 담배, know 행복'이란 주제를 발표한 'Moonbow'팀(정서영 외 2명)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동그라미'팀(염지후 외 4명)의 '우리는 참여하고 싶어요'와 '은가비'팀(신은지 외 4명)의 'O.C.P.R.(Our Convenient

PublicRestroom) 정책'이 받았다. 우수상은 '오합지졸'팀(오상아 외 3명)의 '아동의 꿈 찾아 Dream'과 '옥천에 한 소리'팀(이한솔 외 4명)의 '옥천 청소년 신문 고가 수상했다. 군은 학생들이 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중 군수는 "아동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아동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남성장애인에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안 입법 예고
지급 대상 '여성 장애인→장애인 가정' 변경

청주시가 남성 장애인들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을 기존 여성장애인에서 남성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변경됐다. 출산지원금 규모는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150만원이다. 다만, 부모 모두 장애인이면 중복

으로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으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지급 방지 근거도 마련했다.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조례안 명칭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바뀐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9월 16일까지 청주시 장애인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취약계층 아동 영양개선 추진

결식아동 급식 단가 6000원으로 인상

아동친화도시 옥천군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취약계층아동의 영양 개선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9월부터 남부3군에서는 처음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식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 상키로 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보호자부재,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중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이나 전화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현재 저소득층 아동 급식(276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106명) 등 지원대상 388명의 아동에게 지역상품권 지급과 단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정부의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해 지원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라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887원→153만6324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으로 512만108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본증가율은 3.02%로 결정됐

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를 1.94% 인상을 적용했다. 최종적으로는 5.02%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이다.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이 기준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이 최저보장 수준이 되는 만큼,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를 급여화한 데 이어 하반기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새롭게 급여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거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거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로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규모 늘린다”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전용 38억 추가 확보

대상자 1000명 추가·돌봄시간 120시간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연 40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봄비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간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6세~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시간(연 720시간)이 적은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원을

추가 확보해 1000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이에 지원 대상자는 기존 4005명에서 5005명으로 늘었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를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열여덟 홀로서기' 돕는 자립수당 대상 확대

이달부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년→5년 이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끝난 '보호종료 아동'(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시설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왔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80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지급 대상이 넓어지

면 약 600여 명이 늘어 총 8천 400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제한된다.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된 당사자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시설 종사자·위탁 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종료를 앞둔 아동은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 신청 방법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다자녀가구 재학 중 대출이자 면제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도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도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10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 고등 교육 분야 주무부처와 대학 교육 협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간 투자 성과와 내년 예산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 혁신 유도를 목

표로 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편과 지역인재 육성·순환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고등 교육 기회의 형평 강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새로 신설된 대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과 성과 창출, 고등 교육 기회의 지속 확대,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및 반침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은 749만원가량으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도 이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역 혁신 프로그램(RIS),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 대학(LINC) 3단계 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역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직업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디지털 융합 캠퍼스는 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LINC 3단계 사업은 글로벌 산업 협력까지 확장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들어 37만6000명 신청

저소득 구직자 등에 구직촉진수당 '1인당 300만원'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들어 3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29만7000명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은 64만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도 1인당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취업난도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청

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이지만,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올해 들어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인원은 2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등 28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맞춤형 급여안내' 도입

가구·경제상황 따라 수급가능 급여 안내

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bokjiro(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기관과 업무 범위, 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의 범위를 광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나 사회복지시절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가 추가됐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 시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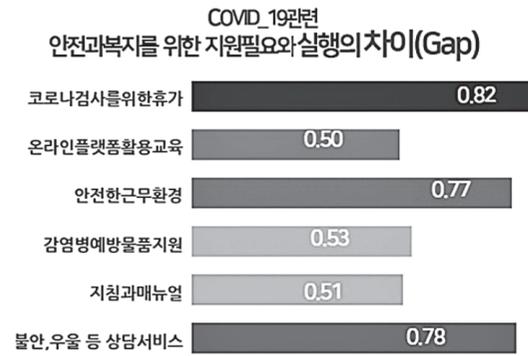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 종사자 조사 결과 57.6%가 '매우 중요' 응답... 30대 심리 정서 변화 높아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및 지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사 감염 재난대응을 위한 전략과 시설운영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본오차(SE: Sampling Error) 95% 신뢰수준에서 ± 5.99%p.

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 사회복지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원필요도와 현재 기관(시설)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검사 등을 위한 특별휴가 사용' 항목의 차이(Gap)가 0.82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외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0.78점 차이), '안전한 근무환경(물리적 환경, 재택근무 등) 지원' (0.77점



차이) 등의 순을 보였다. 코로나19 시대에 심리 정서 변화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연령층에서 '불안, 공포를 자주 느낀다'가 5점 척도 평균 3.80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변화로는 '개인위생이 좋아짐' 44.1%, '온라인 환경구축' 2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변화로는 '소통의 불편함'(30.5%), '불안감 증가'(25.0%)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희망철도재단 관계자들이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20대의 PC를 전달하고 있다.

뜨거운 철길타고 장애인가족에게 찾아온 선물

희망철도재단,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PC 20대 전달

희망철도재단이 철도사업장에서 사용기한이 끝난 컴퓨터를 형

편이 어려운 제천시 장애인가족의 청소년에게 지원하고자 제

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순애)에 20대의 PC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레일제전기관차승무사무소

(소장 정필남) 직원들과 철마회 봉사단(회장 유승철)은 휴일을 반납하고 컴퓨터에 쌓여있는 먼지 청소, 프로그램 설치와 외부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학습용 교육 장비로 재정비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됐다.

최근 전달된 컴퓨터 10대는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교육용으로 쓰이고 10대는 장애인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애 센터장은 "7개의 사업팀과 연계된 장애인 가정에서 소중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무더위와 코로나19를 동시에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정말 뜻깊은 나눔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남야 전용 126㎡ 규모... 침실·상담실 등 구성

청주시가 아동학대 사건 증가와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상반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수탁자 선정심의회 선정심의를 통해 1개소 위탁운영자를 선정했

다. 이 운영자는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야점)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개소한 쉼터는 남야전용인 비공개시설로, 126㎡ 규모의 침실과 상담실 등을 갖춰 7명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다.

시설장과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6명이 학대피해아

동 보호·양육하게 된다. 이번 쉼터 개소로 청주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전용 2개소, 남아전용 2개소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쉼터를 점차 확충할 계획"이라며 "피해 아동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차매애 관심키움 온라인 걷기대회

9월 24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옥천군차매안심센터(센터장 이인숙)는 제13회 차매극복의 날인 오는 9월 21일을 기념해 차매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촉구 및 차매 친화적 분위기 조

성을 위해 차매애 관심키움 온라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이달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걷기 플랫폼(워크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옥천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옥천군차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 후 걷기활동 및 지정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참여자 전원에게 생활방역키트를 제공하고 각 미션 수행 선착순 지정 인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으로 옥천사랑상

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미션별 상품지급 인원과 미션 성공을 위한 힌트 4가지는 옥천군 차매안심센터와 보건소 홈페이지 걷기대회 홍보 포스터를 확인하면 되며, 미션별 상품권 지급 및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생활방역키트는 10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차매안심센터에 본인 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제작한 디지털 거리두기 키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디지털 거리두기 키트'로 코로나 블루 예방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작... 청소년 정서적 지지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고미숙)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로 청소년들의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디지털 거리두기 키트'를 제작했다.

디지털 거리두기 키트는 청소년 안전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제한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지원 및 긍정적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고민이 있을 때 청소년 전화 1388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키트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 우울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거

리두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화 그리기 세트, 스크래치북과 함께 긍정적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줄 보드게임, 신체 방역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키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된 스마트폰 과의존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16개 초·중학교 중·고 위원군 1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담당 상담자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동봉해 청소년들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며 소통에 힘을 계속한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추진

올해 사업비 1억원 투입... 12월까지 각종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애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16

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500여 명의 발달장애인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운영한다.

2021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충북지역발달장애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은 8월에서 12월까지 각종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올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인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043-236-8302),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043-237-8302), 충북지역발달장애

"장애인 보조기 지원받으세요"

충북도, 저소득 장애인에 목욕의자 등 전달

충북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품목은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35개 품목이다.

보조기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및 보조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올해 총 28명의 대상자에게 보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복지 수준을 높였으며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보냈다.

한편, 시군에서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센터에 자문해 보조기기 구입 및 사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자립생활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누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정부, 아동학대 예방·조사·보호·회복지원 등 대응체계 보완 전학지원, 심리치료 확대...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담당인력 확충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수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20년 7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021년 1월)'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021년 3월 30일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조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아동 발굴·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포도 개선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에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드립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이번 2021년 2,000명에서 오는 20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 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법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문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오는 20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 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제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난 1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아동 방문조사 원칙

☑️ 생애 초기 영유아 특화 건강 확인 및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 2세)
* 29개소(21년) → 50개소(22년) → 전국 258개소(24년)
-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 확인 강화

☑️ 시군구 아동보호팀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 구축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 아동 특성별(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조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 분리·보호 중 학습권 보장
- 일시분리 중 인근 학교 등교학습 지원
- 필요시 지자체 요청을 통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피해아동 및 가정 회복 지원
- 심리치료 지원 대상 확대(4,800명, '22년)
- 피해아동 전문 치료 담당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시범 운영(1,000가구)

아동학대 인식 개선

☑️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한 부모교육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 민간 합동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 지자체 및 경찰 아동학대 담당인력 확충
- 아동보호전문요원 524명 → 700명 이상('22년)
- 학대예방경찰관(APO) 260명 경력경쟁 채용('23년)

☑️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 확충 목표(~'25년)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대상 확대(만 2세 미만 → 만 6세 미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임금채권보장 제도라 합니다. 임금에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까지 하게 된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도산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보호

소액 체당금 제도

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고, ②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③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체불금품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액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여부, 체당금 액수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신청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신청기간: 수시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문의: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때 전화해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연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기타: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

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신청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참고: www.ktngwelfare.org

[본사랑재단] 2021년 결식아동 본죽,본도시락 식사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장애, 저소득, 결손가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에게 분죽, 본도시락 10매 지원(1매 5,000원 / 총 10매 50,000원 지원)
신청대상: 지원대상 아동의 관계 기관 및 추천인
접수기간: 2021.12.31.까지
신청발표: 신청서 확인 후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개별 연락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http://naver.me/x8lWJ4i6)
문의: 02-734-6233, bonlove09@hanmail.net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문의: 02-3010-2566,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 초중생 영어 학습지도

관리센터: 에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54-9391

▶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청주청소소년심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31-2676

▶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99-5734

▶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66-4761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16-1365

▶ 진통공원 환경미화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16-3060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35-4288

▶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37-5544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16-1391

▶ 공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35-428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숙)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경숙)는 지난 7월 26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사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진행했다. 봉사단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임하였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숙 회장은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 매주 시간을 내어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 도민공감·좋은생각 |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2021. 8. 16.(월) - 9. 17.(금)



참여대상

충북에 주소지를 둔 도민 누구나 참여, 충북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등

공모주제

- 일상속 작은 실천이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 안부를 묻는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아이디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면·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방안
- 이웃을 돕는 생활 속 작은 실천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아이디어
- 탄소 중립 관련, 기후변화 대응 자원봉사 활동 방안
- 친환경 자원봉사 활동 방안
- 안심하는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아이디어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
-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시상규모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선정, 부상금. Rows include 대 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50만원), 우수상 (3명/30만원), 장려상 (6명/10만원).

참여방법

- 온라인접수 | 네이버폼 사항 - 내이메일: http://naver.me/FNm8vKMy
QR코드 - 우측상단 참고
우편 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1층 양식 -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cb1365.net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심사방법

2021. 9. 30.(목) 예정 홈페이지 게시 수상자 개별통보

문의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 043) 225-136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복지/만/평

당사자주의

이창신 www.bokmani.com



진짜 중요한 건 아이(당사자)의 생각입니다.